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호성 과장(044-203-4430), 이중엽 사무관(044-203-4456)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현옥 과장(044-202-7404), 박진영 사무관(044-202-7406)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이홍수 과장(044-201-3730), 안병삼 서기관(044-201-3681)

산단 혁신으로 청년, 여성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일터를 조성

【 노후산단 혁신 3년 성과와 향후 계획 】

- **5개 산단에 13개 대학 이전, 7백여명 청년 연구인력이 중소기업 취업**
- **2곳에 불과했던 산단형 직장어린이집이 40여곳으로 늘어남**
- **11개 산업단지 인근에 약 6,306호의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**

□ 정부가 지난 '13년부터 산단의 연구·혁신역량 강화, 근로·정주환경 개선과 같은 사업에 총 6천억원(민자 1,600억원 포함)을 투입하는 등 노후산단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산단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

① 산단 내에 '산학융합지구'를 조성하여 대불, 구미 등 5개 산단에 13개 대학이 이전하고 757명의 청년 연구인력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함 (산업통상자원부)

② '12년 2곳에 불과했던 '산단형 직장어린이집'을 '16년 현재 46곳(26곳 운영중, 20곳 설치진행중)으로 늘려 일·가정 양립을 지원 (고용노동부)

③ 대구테크노산단 등 11개 산단 인근에 약 6,306호의 '산단형 행복주택'을 공급키로 확정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추진 중 (국토교통부)

Indus

④ 약 1,6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로 카페, 편의점, 베이커리와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형 오피스텔, 지식산업센터 등 5개 복합시설을 확충 (산업통상자원부)

⑤ '근로자 건강센터'를 '12년 2개에서 '16년 현재 21개로 늘려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예방 상담, 작업환경 컨설팅을 지원 (고용노동부)

□ 정부는 향후에도 2020년까지 재정 지원, 민간투자 유치를 포함한 총 1.5조원(잠정)을 투입하여, 노후산단 혁신의 성과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산·학·연 협력 사업과 근로·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·개선해 나갈 계획임

※ 붙임 : **【 산업단지 혁신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·계획 】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이중엽 사무관(044-203-44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산업단지 혁신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·계획 】

◇ 산업단지는 '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(現 서울디지털산업단지) 최초 지정 후 현재 1,124개로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옴

* 제조업에서 생산의 70.9%, 수출의 79.7%, 고용의 47.9%를 담당하며 경제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('14년 기준)

◇ 그러나, 산단이 노후화되고 기반·지원시설이 부족해 점차 청년층과 첨단기업의 유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함에 따라,

* 총 638개 국가·일반산단 중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 126개('15년 기준)
* 대학생의 47%가 편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산단 내 취업 기피('14. 산업단지공단 설문조사)
* 산업단지 내 연구소 보유기업 비중은 16%, 연구인력 비중은 3.8%('13년 기준)

○ 산단의 연구·혁신역량을 높이고 젊은 산업인력의 육성과 산단 內 중소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위한 산학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

○ 청년·여성을 비롯한 산단 근로자가 일하면서 복지·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음

1 산·학·연 협력 강화로 젊고 활력있는 산업단지 조성

▶ **산학융합지구 조성**(산업부) :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교수·학생 참여 산학 공동연구, 현장학습, 산단 內 중소기업 취업 연계 촉진

- '12~'15년간 시화, 군산, 구미, 오송, 대불 5개 산단에 13개 대학(28개 학과), 5천8백명의 학생들이 이전

- '13~'15년간 757명의 청년 연구인력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

⇒ **'20년까지 산업융합지구를 13개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**

< 성과 사례 >
* 금오공대 학생 A씨는 경북산학융합지구에서 구미산단내 3D프린터 제조 중소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심장을 3D프린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동 분야에 흥미를 갖고 해당기업에 취업, 지속 연구개발 중




Indus

▶ **산·학·연 R&D 협의체 확대**(산업부) : 산·학·연 공동으로 R&D, 기술 사업화 추진

- 산업단지 입주기업들, 인근 대학, 그리고 연구소간 산학연 R&D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('12년 70개 → '16년 85개, 누적기준)하여 중소 제조업의 기술력 제고

⇒ **'18년까지 산·학·연 R&D 협의체를 100개로 확대할 계획**

2 근로환경의 개선

▶ **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**(고용부) :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설치·운영비 지원(개소당 최대 22억원 지원)

- '12년 2개 → '16년 46개(26개는 운영중, 20개는 설치진행중)로 확대(누적기준)

⇒ **'20년까지 100개소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**

< 성과 사례 >
* 서울디지털산단은 여성근로자수가 '03년 1.3만명에서 '13년 4.3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했으나, 직장어린이집을 3개 신규 건립하여 여성 인력들의 육아부담 완화에 기여



▶ **근로자 건강센터**(고용부) :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예방 상담 등 지원

- '12년 5개 → '16년 근로자 건강센터 21개 및 분소(헬스존) 5개로 확대 운영

⇒ **'20년까지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(헬스존)를 40개로 확대할 계획**

▶ **산재예방시설**(고용부) :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위한 체력단련장, 목욕·샤워시설 확충

- '14년에 17개를 지원하고 '16년까지 누적기준 27개 지원 (24개 운영중, 3개는 설치 진행중)

⇒ **'20년까지 산재예방시설을 74개로 확대할 계획**

< 성과 사례 >
* 시화산단의 경우 영세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단지내 공동이용 가능한 체력증진시설, 샤워시설 등이 부족하였으나, 산재예방시설로 헬스장, 탁구장,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업무능률, 만족도가 향상됨



▶ **노후공단 재정비**(국토부) : 노후화된 도로·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시설 확충

- '15년까지 18개 산단을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

⇒ **'20년까지 18개 산단의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시설을 확충할 계획**

3 산단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

▶ **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**(국토부) : 산단 인근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(공급물량의 90%까지 산단 근로자에게 공급 가능)

- '16년 9월 현재 대구테크노산단 등 11개 산단 인근에 약 6,306호의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

⇒ **'17년까지 총 1만호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확보 추진(사업승인기준)**

4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복합편의시설 확충

▶ **산단환경개선펀드**(산업부) : 정부 펀드자금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업종 집적화시설, 편의시설 등 확충

- '15년까지 정부펀드 310억원을 마중물로 반월산단 기숙형 오피스텔, 시화산단 PCB(인쇄회로기판)·도금업종 집적화공장 건립 등 2개 사업에 690억원 민간투자 유치

  * 반월산단 오피스텔은 근로자 주거편의 환경을 제공, 시화산단 집적화공장에는 PCB·도금 등 유사업종 18개사가 입주하고 폐수처리시스템 등 공동이용으로 악취가 없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, 폐수처리비용도 40% 절감

⇒ **'19년까지 정부펀드 500억원을 마중물로 5개 사업에 총 1,860억원 민간투자 유치**

< 성과 사례 >

* 반월산업단지에 근로자 오피스텔을 건립하여 직원들의 통근거리를 단축하고, 깨끗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만족도가 높아짐



▶ **구조고도화 민간투자 사업**(산업부) : 산단내 용도 변경(예: 산업→지원시설)을 통해 순수 민자로 업종 집적화 시설, 편의시설 등 확충

- '15년까지 남동산단 지식산업센터, 시화산단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3개 사업에 882억원 민간투자 유치

⇒ **'18년까지 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8개 사업에 총 2,392억원 민간투자 유치**